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TEL 02-3460-7314 FAX 02 3460 7777

‘글로벌 이슈 페이퍼’ 정보는 전 세계 122개 무역관에서 오는 실물 경제정보를 취합 분석하고 현안 이슈가 발생한 해외 현장의 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우리나라 무역 투자 활동을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이슈 요약

남아공 대선과 ‘주마’ 대통령 2기 행정부 경제정책

- ‘14. 5월 치러진 남아공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ANC(African National Congress)가 승리, 제이콥 주마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 ANC는 이번 선거에서 62.2%의 득표율을 얻었으며 DA(Democratic Alliance: 22.2%득표, 2위) 등 여타 정당에 비해 절대 우위 차지.
- 그러나 지난 2009년 총선에 비해 3.7% 득표율이 하락하였으며 ‘99년 이래 최저 득표율을 기록하여 차기 총선에서 정권교체가 가능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 고조.
- 남아공은 ‘13년 1.9%의 낮은 경제성장율에 이어 ‘14년 1분기 - 0.6%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경제 침체 상태가 지속. 특히 남아공 수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광산업계는 ‘14. 1부터 5개월 이상 파업을 시행.
- 이에 따라 집권 2기 ‘주마’ 대통령은 실업을 해소 및 일자리 창출, 광업부분 등 노사 관계 안정화, 투자회복위한 친기업 정책 등을 추진 예정. 이를 위해 신정부는 산업다변화, 녹색경제 투자, 특별경제구역(SEZ) 신규 조성, 지식기반 경제로의 전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발전 로드맵을 발표.
- 우리기업은 남아공 신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녹색정책과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에너지 효율화 설비 등 분야 진출이 유망. 특히 남아공이 아프리카 역내 유통시장의 교두보임을 감안하여 아프리카 역내 시장 공략 위한 진출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전략 필요.

남아공 대선 및 ‘주마’ 대통령 2기 행정부 경제정책

I 남아공 대선 결과 및 의의

1. 대선 결과 및 남아공 정국 변화

□ 제이콥 주마 대통령 재집권 성공

- 2014년 5월 7일 치러진 남아공 총선에서 집권 여당인 ANC(African National Congress)의 승리로 제이콥 주마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함.
 - * 남아공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하는데,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이 배분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치러지는 남아공 총선에서 ANC가 승리하여, 총선결과에 따라 주마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
 - 금번 총선은 국회의원 선거(400석), 주의원 선거(9개주 430석)가 동시 진행
 - 전체 투표율은 73.43%로 전체 선거인 등록인구는 25,381,293명으로 이 중 18,654,457명이 실제 투표에 참여
- 집권 여당 ANC는 2009년 총선보다 약 3.7%의 득표율이 하락함에 따라 하원에서 15석이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절대 우위를 확인
- 신생정당인 EFF(Economic Freedom Fighters)는 총선에서 6%의 득표율을 기록하여, 신생정당 중 최다 득표율을 기록하였으며, 제3당으로의 위치를 확보.
 - 주의원 선거에서도 림포포(EFF 대표의 고향)주 외에도 노스웨스트에서 DA(Democratic Alliance)를 근소한 차이로 제치고 제1야당에 등극
- 2009년 총선에서 전국 평균 7%이상의 고른 득표율을 기록하여 제3당으로 활동한 COPE(Congress of the People)는 선거 직전 다수의 소속 의원들이 ANC로 이탈하면서 이번 총선에서 득표율은 급격히 하락함.
- 최초의 흑인 재무장관(은혼들라 네네)이 임명되었으며 흑인이 임명된 것은 처음으로 사회·경제적 변혁을 위한 상징적인 조치로 평가

2. 대선결과의 의의

□ 야당 DA, 백인 정당 이미지 탈피

- 백인정당이 뿌리인 제1야당 DA는 2014년 총선에서 22.23%의 득표율을 얻어 2009년 16.6%에서 6%를 더 득표하고, 큰 폭은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골고루 지지율이 상승함.
- 이는 인구의 80%가 흑인인 남아공에서 백인정당 이미지에서 탈피하기 위해 DA가 오랫동안 노력해온 결과로 평가되고 있으나, 득표율은 하우텡, 웨스턴 케이프에 편중되어 전국적 정당이 되는 데는 한계를 드러냄.

□ 집권여당 ANC, 차기 총선에서의 정권교체 가능성 인식

- 20년간 집권해온 ANC는 정권을 연장했으나, 이번 선거에서 총 62.15% 득표율을 기록하여 지난 1999년 이래 최저 득표율을 기록함으로써, 2019년 차기 선거에서 지지율이 60% 이하로 하락되거나 정권교체가 가능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낌.
- ANC가 확보한 8개 주 주지사 중 하우텡, 노스웨스트, 이스턴케이프 등 3명의 주지사가 교체되었고, 나머지는 유임되었으며 DA도 웨스턴 케이프 현주지사가 주지사직을 연임함.

[신임 주지사 명단]

주	주지사	소속당
Eastern Cape	Phumulo Masualle	ANC
Free State	Ace Magashule	ANC
Gauteng	David Makhura	ANC
Kwazulu-Natal	Senzo Mchunu	ANC
Limpopo	Stanley Mathabatha	ANC
Mpumalanga	David Mabuza	ANC
North West	Supra Mahumapelo	ANC
Northern Cape	Sylvia Lucas	ANC
Western Cape	Hellen Zille	DA

3. 주마 대통령 집권 2기의 기대와 평가

□ 신정부 출범에 대한 남아공 국내 반응

- 남아공대학 정치학과 코체 교수는 지난 4월 주남아공 한국 대사관에서 개최된 ‘남아공 총선 전망 초청세미나’ 발표에서 ANC 지지만이 애국이라고 믿었던 흑인사회의 통념이 점차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
 - － 이와 같은 현상으로 남아공노총(COSATU)내 금속노조(NUMSA)*의 ANC 지지철회 선언, EFF/ 국민회의(COPE)등 ANC 탈당세력의 독자정당 설립 등을 지적함.

* 금속노조(NUMSA)는 남아공 공산당(SACP)와 함께 과거 백인정권의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 정책에 맞서 민주화 투쟁을 벌이고, ANC 정권과 삼각동맹 관계를 형성해 왔음

- － 한편 코체 교수는 남아공 정세 및 정부정책이 외부에서는 불안정해 보이거나 위기상황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함. 그러나, ANC가 안정된 헌법질서와 거시경제 정책으로 안정적 국가체제를 구축해 왔으며, 이집트와 튀니지와 같이 급격한 사회변동은 없을 것으로 전망함.

□ 신정부 출범에 대한 신용평가기관 반응

- S&P, Fitch 등 신용평가기관들은 남아공 총선 자체는 신용등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 그러나, 남아공노총(COSATU), 남아공공산당(SACP) 등이 국가개발계획(NDP: National Development Programme)에 비판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국제 투자자들에게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함. 선거 결과에 따른 남아공 정부의 태도 변화 및 광산업계의 장기간 파업이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밝힘.

* S&P는 지난 6월 둘째주에 남아공의 국가 신용등급을 기존 ‘BBB’에서 ‘BBB-’로 강등. 강등 사유는 백금 광산의 장기파업과 GDP 성장 전망이 부정적인 것에 기인한다고 밝힘. 그러나 남아공 정부는 S&P의 이같은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피력하고 있음.

II

최근 남아공 경제 동향

□ 2014년 경제성장률은 2.3%로 저성장 예상

- IMF는 지난 4월 남아공의 금년도 성장률 전망을 기존 전망치 2.8%에서 2.3%로 낮추어 발표함.
- 이같은 IMF의 전망은 남아공 경제가 외적으로는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지만 대내외적인 리스크가 커지고 있고, 2014년 1분기에 5년 만에 처음으로 연율(annualized quarterly growth rate)이 0.6% 감소된 것에 기인함.
- 2014년 1분기 GDP성장률은 -0.6%를 기록하여 2013년 4분기 3.8% 성장에서 급격한 감소세를 기록함.

[주요거시경제 지표 (2010년-2013년)]

구분	단위	2010	2011	2012	2013
실질 GDP증가율	%	3.1	3.6	2.5	1.9
명목 GDP	\$백만 달러	365,504	403,976	382,656	351,027
1인당 GDP(PPP)	\$달러	10,178	10,649	11,009	11,303
총 인구	백만명	51.5	51.9	52.4	52.8
수출	\$백만 달러	89,757	108,788	99,335	95,146
수입	\$백만 달러	82,983	102,302	104,160	104,160
경상수지	\$백만 달러	-7,192	-9379	-20,059	-20,445
외환보유고	\$백만 달러	43,829	48,867	50,699	49,690
총 외채	\$백만 달러	43,829	48,867	50,699	139,491
평균 환율	R:US\$	6.59	8.08	8.48	10.49
실업률	%	24.9	24.8	24.9	24.7
소비자물가지수	%	3.4	6.4	5.7	5.3

(자료원: EIU)

[실질GDP성장률 추이 (2010년-2015년)]



(자료원: EIU), * 표시는 추정치

- 경제성장 부진의 주된 원인은 광산업계의 장기파업에 기인함.
 - 남아공 수출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광산업계는 지난 1월부터 5개월 이상의 장기파업으로 백금 등 주요광물 생산이 거의 중단된 상태임.
 - 2014년 3월 현재 광산업은 전년동기 대비 4.7% 감소했으며, 특히 PGM (platinum group metals) 생산량은 전년동기 대비 44.3%나 감소함. 또한 광산업계의 장기파업으로 제조업도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가고 있음.
 - 남아공 광산건설노조연합(AMCU: Association of Mineworks and Construction Union)이 이끄는 7만여명의 노동자들은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지속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Anglo American Platinum, Impala, Lonmion 등 전세계 최대 규모의 백금광산이 폐쇄됨으로써, 광산업 전체가 25% 감소
 - 이같은 광산업계의 축소는 지난 50년 기간 동안 가장 큰 폭으로 감소된 것이며, 3개사는 \$20억 달러의 매출감소를 보였고, 노동자들은 \$8억8,500만 달러 상당의 임금손실을 기록함.

<남아공 광산업계 노조 vs 사측 임금협상 제시안>

(현황) 남아공 광산노동자들의 월평균 최소임금(보너스 및 복지 포함)은 \$500불 미만

(노조측) 월평균 최소임금(보너스 및 복지 포함)을 \$1,152달러 보장 요구

- 물가 및 주거비용 상승에 따른 최소 임금이라고 주장

(사측) 월평균 최소임금(보너스 및 복지 포함)을 \$553불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 고수

- 중기적으로는 전력수송 등 인프라 분야에 대한 정부의 대규모 공공 투자, 서비스업종의 지속적인 성장, 저금리 등이 남아공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예상됨.
- － 그러나 남아공의 지속적인 성장(growth)과 개발(development)을 위해서는 가장 큰 국가적 문제인 높은 빈곤율과 실업률, 빈부격차 문제 등이 선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공투자와 더불어 민간 부분에서의 큰 폭의 성장 및 투자가 필요함.

III

신정부의 주요 정책방향 및 개혁 과제

1. 주요 정책 방향

남아공 정부는 남아공의 산업발전 로드맵*을 담고 있는 ‘2014/2015-2016/2017 년도 산업정책 사업계획서’를 발간

* (로드맵 주요내용) 산업발전계획의 목표는 포괄적 경제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남아공을 비롯한 아프리카 역내 국가들과의 공동 성장임.

□ 산업 발전

-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산업 다변화를 추진하기 위해, 노동집약적 산업의 생산량 증가 및 부가가치 향상에 집중
- 노동 효율성 증가, 국가 경쟁력 향상, 영세업자 및 중소기업, 대기업들을 위한 지원 확대, 수출의 부가가치 향상, 교역 개선, 아프리카 사회 기반시설 투자 및 개발, 경쟁력과 통합성을 갖춘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 확대
- 기존 산업 업그레이드 및 신규 육성사업 지원
 - － 주력산업인 광업, 석유화학, 자동차업종 지원과 더불어 성장산업인 조선, 석유·가스산업 육성을 통해 산업 다변화를 시도하고, 제품 및 서비스의 고부가가치화 추진
 - － 국내 및 글로벌 경기 침체로 타격을 받고 있는 제조업 성장을 위해 ‘우대구매정책법’을 통한 정부의 공공조달로 제조업 기업 지원

□ 녹색경제 이니셔티브

- 기후변화 리스크 완화,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녹색성장 정책을 적극추진하고, 일자리 창출, 수출경쟁력 증대로 지속가능한 성장 도모
 - － 녹색경제 투자 확대를 통해 향후 10년간(2011년 기준) 30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 * 2012년 남아공 재무성은 R800백만 랜드 규모의 예산을 2년간 남아공 정부가 설립한 녹색기금(Green Fund)에 투자하여,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녹색경제프로젝트 지원 계획 발표
-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전력원 다변화, 에너지부분 개선 및 정책 개발을 통해 녹색성장 적극 추진
 - * 남아공 정부는 2012년 5월 기준으로 풍력, 태양광, 수력 등 총 R73백만 랜드 규모의 19개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허가
- － 신재생 에너지 민자발전 조달프로그램(REIPPP: Renewable Energy Independent Power Producer Procurement Programme) 계획 등을 통해 제조업에서 17.8 GW의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설정 및 적극 실행

□ 특별경제구역(SEZ) 조성

- 특별경제구역(SEZ: Special Economic Zone)을 설립하여 SEZ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기존 28%보다 13% 낮춘 15%로 적용 (남아공 무역산업부가 의회에 법안 제출 완료)
 - * 현재 남아공의 총 4개의 산업개발구역(IDZ)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특별경제구역을 추진
- 특히, '녹색분야' 산업을 중점유치하고 자유무역지대 수준으로 운영. 기존 고부가가치세 면세 정책과 함께 지방정부차원에서 신속한 환경영향평가 진행, 전기세 환급, 건물세 보조 등의 혜택 지원

[남아공 기존 및 신규 특별경제구역(SEZ)]

구분	소재지	지명	주력 분야
기존 IDZ	Eastern Cape	Coega	전자, 자동차, 섬유, 중공업
	KwaZulu-Natal	Eastern Cape	자동차, 섬유, 의약품
		Richards Bay	철강, 화학, 식음료 가공

신규 SEZ	Gauteng	OR Tambo 국제공항	물류
	Western Cape	Saldanha Bay	석유
	Limpopo	Musina	석유화학, 석탄, 물류, 식품
	Northern Cape	Greater Tubatse	백금속, 수소연료전지
		Rustenburg	백금
		Upington	태양열
	Free State	Nasrec	식품가공, 물류
	KwaZulu-Natal	Harrismith	식품가공, 물류
	Eastern Cape	Dube Trade Port	식품가공, 물류
		Wild Coast	식품가공
	Western Cape	Atlantis	재생에너지

□ 지식기반경제 전환을 위한 혁신

- 지식기반경제 전환을 위한 가장 큰 도전으로 ①‘Farmer to Pharmer value chain’을 목표로 남아공 보유 풍부한 자원을 기반으로 생명공학 기술 및 제약기술을 발전. 10년 내 전세계를 주도하는 기술력 확보, ② 우주과학기술 개발 ③ 에너지안보 대처 (중기- 에너지 공급 확대, 장기- 청정석탄기술,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수소에너지), ④ 기후변화 과학 개발, ⑤ 사회역학(social dynamics) 연구 확대, ⑥ 남아공의 풍부한 백금을 활용한 연료전지 개발 및 투자 확대
-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① 기후변화 리스크에 적극 대처, ② 범죄 리스크 감소, ③ 질병대응 신약 개발, ④ 지속가능에너지 개발, ⑤ 가뭄에 대응, ⑥ 질병에 강한 농작물 품종 개발, ⑦ 공정과정의 혁신 등을 도모

□ 광업 분야 가공업 육성

- 남부 웨스턴 케이프 지역에 R150억 랜드 규모의 금속가공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단순 자원 채광·수출의 현재 방식을 개선. 전략 광종 채광, 제련 등 일련의 가공과정을 거쳐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7천개 일자리 창출 효과 창출

□ 인프라 투자 확대

- 2012-2014년 3년간 R8,002억 랜드화를 인프라 개발에 투자하여 운송비용 절감 및 수출시장 접근성 개선. 인프라 개발은 주로 전력, 운송, 물류, 병원, 인적자본에 대한 교육 등에 투자되며, 전력개발 투자를 통해 2011년 공급기준에서 두 배 이상 전력공급량 확대

2. 신정부의 개혁 과제

□ 실업률 해소 및 일자리 창출

- 남아공 정부는 2020년까지 5백만 명의 신규 고용창출을 목표로 하는 ‘신성장경로(New Growth Path)’를 2010년에 확정하고 추진 중임.
 - 6개 부문(인프라, 농업, 광업, 녹색산업, 관광, 서비스업) 신성장동력 발굴, 노사 간 사회협약 체결, 실업률 감소(25%→15%)를 위해 부문별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
 - 주마 행정부는 실업 문제 해결과 국내산업 보호에 중점을 두어 양자(bilateral) FTA 체결에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페인과 체결했던 상호투자협정(BITs: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을 폐지했음. 또한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와의 BIT 철폐를 금년 내에 마무리 할 계획이며, 오스트리아, 덴마크와의 BIT 철폐도 검토 중에 있음.
- 남아공 정부는 국가개발계획(NDP)의 실행, 녹색경제 정책 추진, 혁신(innovation)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효율성 증대, 과학기술 개발 등을 통해 포괄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실업문제에 대처할 것임을 시사

□ 노사관계

- 주거비 상승, 고실업률, 사회 불평등 심화로 남아공 대 노사관계 및 치안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 특히 남아공 경제의 중추인 광업 분야에서의 임금인상 요구 파업 및 파격시위는 대외적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국가신용등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어, 정부는 라마포사 부통령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 장관이 협력하여 광업부문 안정화에 주력할 계획임.

□ 친기업 정책 추진

- 집권여당인 ANC의 총선 승리로 재선에 성공한 주마 대통령은 당선 연설에서 친기업적 개혁 추진을 시사
- ANC 궤대 만타세 사무총장 또한 투자자의 신뢰회복을 위해 향후 5년 동안 국가개발계획(NDP)을 착실하게 수행할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새로 들어설 내각 역시 시장경제를 적극 지지할 것이라 밝힘.
- 지난 재임기간 중 경제성장세 둔화와 파업 등으로 큰 타격을 입었으며, 최근 사저 스캔들까지 겹쳐 위기에 처했던 주마 대통령은 노조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친기업적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임.

IV

한국의 대남아공 진출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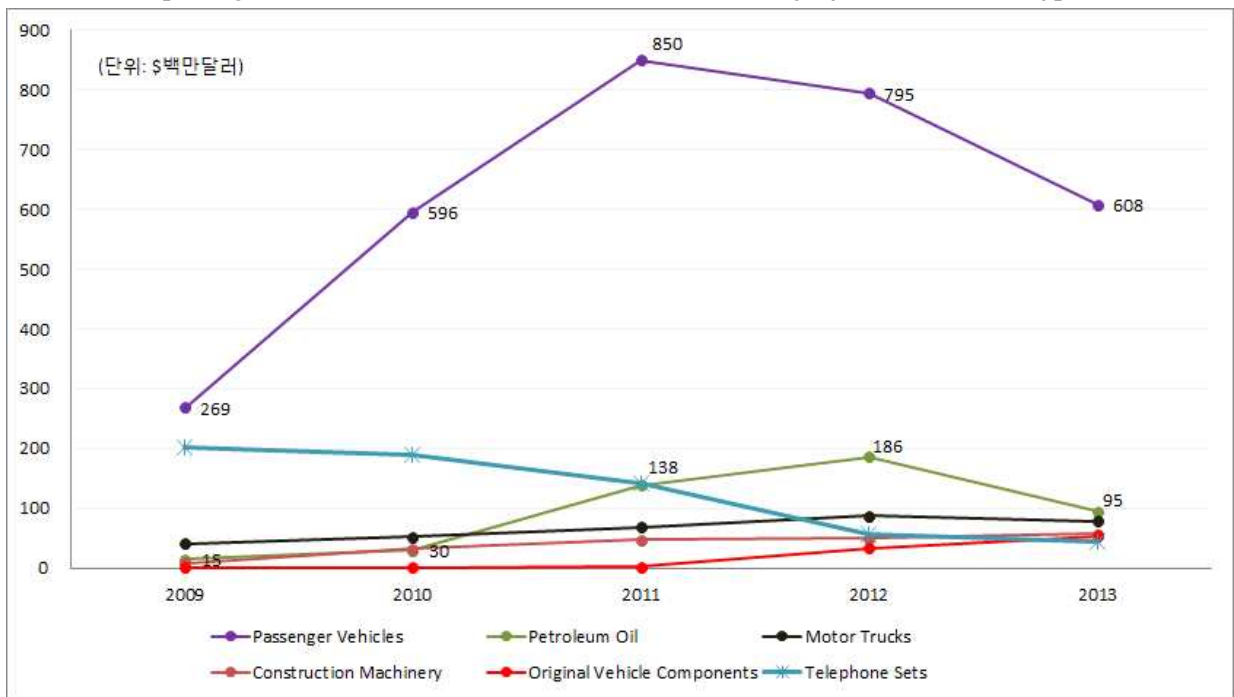
1. 남아공과의 교역현황

□ 남아공의 한국으로부터의 주요 수입품목 수입 감소

- 한국의 대남아공 주요 수출품목인 승용차(HS code: 8703), 석유와 역청유(2710), 전화기세트(8517) 등의 남아공 수입이 감소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으로부터의 전화기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함.
- 남아공의 한국으로부터의 승용차 수입은 2009년 \$269백만 달러에서 2011년 \$850백만 달러로 급격히 성장했으나, 2012년부터 감소하여 2013년에는 \$608백만 달러에 그침.

- 남아공 통신산업의 고속성장과는 반대로 한국으로부터의 전화기세트 수입은 2009년 이후 크게 줄어들고 있음. 남아공의 한국산 전화기세트 수입은 2009년 \$201백만 달러를 기록했으나, 2013년에는 \$44백만 달러까지 떨어짐.

[남아공의 한국으로부터의 주요 수입품목 수입 현황 (2009년-2013년)]



(자료원: World Trade Atlas, 남아공의 수입신고금액 기준)

□ 중국의 대남아공 수출품목은 남아공 산업변화에 부응하며 다변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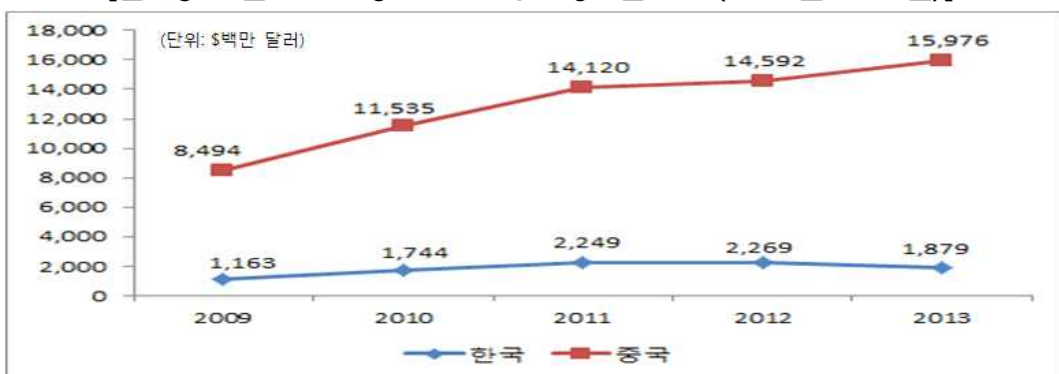
- 남아공의 중국으로부터의 상위 5개 수입물품은 전화기세트(8517), 자동데이터처리기계(8471), 인쇄기계(8443), 건설기계(8429)로, 중국은 남아공의 통신산업 성장, 인프라 투자 확대, 공정자동화 등 산업발전에 부응하는 품목 위주로 수출품목을 다변화해 오고 있음.
- 특이한 점은, 반도체기기 수출이 2012년 \$38백만 달러에서 2013년 379백만 달러로 급격히 상승했으며, original vehicle component(9801, 남아공 code)도 2009년 \$28백만 달러에서 2013년 \$203백만 달러로 7배 이상 상승함.

□ 남아공의 한국으로부터의 전체 수입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중국으로 부터의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

- 남아공의 중국으로부터의 총수입액은 2009년 \$8,494백만 달러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에는 \$15,976백만 달러를 기록함. 반면, 한국으로부터의 총수입액은 2009년 \$1,163백만 달러에서 2012년 \$2,269백만까지 증가했으나, 2013년 \$1,879백만 달러로 감소함*.

* 한국무역협회가 집계한 2013년 한국의 대남아공 총수출금액은 \$2,698백만 달러임

[남아공의 한국 VS 중국으로부터의 총수입규모 (2009년-2013년)]



(자료원: World Trade Atlas, 남아공의 수입신고금액 기준)

2. 우리기업의 진출 방안

□ 구조적 전환기에 있는 남아공 산업별 변화에 대응

- 정보통신업, 금융업, 서비스업 등 3차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성장 이 둔화되고 있는 제조업의 부흥을 위해 설비투자의 질적 개선, 공정 과정의 선진화, 기술혁신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조를 목표로 투자 확대 계획인 바, 산업변화에 따른 수출품목을 신중히 선정해야 함.
- 남아공 정부가 '녹색경제'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에너지원 다변화,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효율 증대,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등을 도모하고 있음. 이에따라, 에너지효율 설비·기기 및 온실가스 감축 기술 등의 유망분야로 수출활로를 적극 개척해야 할 것임. 또한 '녹색교통물류' 확대를 위해 철도에 대규모 투자가 계획된 바, 프로젝트 진출 및 철도 차량·설비부품 진출도 필요함.

- 신재생에너지 및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는 정부 단독으로 추진되기 보다는, 민자발전사업(IPP: Independent Power Producer) 및 금융기관과의 협조융자(co-financing)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재원조달 방안을 선결한 후 진출해야 함.

□ 아프리카 역내 유통시장 진출 교두보로서의 남아공

- 남아공에 있는 대형 유통망기업 5개사*가 아프리카 역내 전체 유통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음. 이들 대형 유통망기업은 세계 유통망 순위 94위부터 234위에 속함.
- (남아공) Shoprite(94위), Steinhoff(125위), Pick 'n Pay(137위), SPAR(172위), Woolworths(234위)
- (한국) 롯데쇼핑(43위), 이마트(89위), 이랜드(205위), GS샵(233위)
- 남아공 대형유통망 기업에 납품하여 아프리카 역내 전체에 공급되는 전략적 진출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함.
- * (참고) 국별로 에이전트를 통해 수출할 경우, 수출하려는 품목을 취급하는 에이전트가 국가별로 한 개 밖에 없는 경우가 적지 않아, 에이전트가 우리 기업끼리의 경쟁을 유도하고 가격을 깎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산업협력', '과학기술협력'을 통한 우리기업의 우회 진출 지원

- 여타의 아프리카 국가로의 진출과 마찬가지로, 남아공 진출에 있어서도 우리기업 진출을 위해 정부의 우회지원이 필요함. 남아공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산업정책, 녹색경제 정책, 과학기술개발에 있어 한국은 모든 부분에 있어 성공적인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 따라서 정부간 협력 또는 민관협력을 통해 남아공과의 교류를 확대하여 우리기업의 진출 활로를 모색해야 할 것임.
- (산업정책) 한국은 사회·지식 인프라, 교육, 고급인력 양성, ICT 활용, 지속적인 정책 개발을 통해 2000년대부터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킨 경험 보유

- (녹색경제) 한국은 개도국이 벤치마킹 하고 있는 국가 녹색성장 계획을 수립하여 강력하게 추진한 경험이 있음. 환경·신재생에너지 기술력이 매우 높고, 관련분야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이 매우 유망함. 또한 환경정책 및 에너지효율·절감 정책은 전세계 최고 수준임.
- (혁신정책) 한국은 2014년 종합혁신지수((Innovation Union Scoreboard)에서 전세계 1위를 차지. 한국이 강점을 보유한 과학 기술 및 성공적인 혁신사례 적극 공유 필요 < 끝 >